칼 럼

임 성 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진정한 정치 및 상호부조는 나눔으로부터

예수는 12명의 제자를 두었다.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어부5명, 세리1명, 천막제조사1명 등이었다. 나머지 5명의 직업은 나타나 있지 않다. 어부가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는 이들 모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었다. 즉 인간들의 영생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직업종사자들이 아닌 어부였을까. 어부는 자기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농부는 논밭을 소유한다.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도 자기 것이다. 즉, 직접적 소유가 많다. 때문에 재산을 버리고 떠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부는 그 당시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다. 하지만 그 안의 물고기는 잡기 전까지는 자기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이 어부들은 예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다른 직업인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게 따라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현실적으로 소유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부들 역시 당장 떠나지는 못했다.

그물, 배 등 약간의 재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기에. 그래서 예수의 부름을 받은 사도들도 일시에 모든 것을 다 버리지는 못하고 차근차근 버렸다. 먼저 물고기를 잡는 도구인 그물을 버렸다. 그 다음엔 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에 버려둔 채 떠났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서서히 단계적으로 떠날 준비를 했던 것이다.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것까지도 버리고서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이다.

기독교계의 최고라 하는 12제자들도 애당초 사리사욕을 버리기가 그렇게도 힘들었던 것이다. 하물며 물신주의 세상에서 안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오죽하겠는가. 이런 현대인들의 이기주의가 결국 작은 나눔마저도 어렵게 하고 있다. 때문에 요즘 각 관공서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에서 공유사업을 부르짖고 있다. 일명 나눔의 실천이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 지금 지구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남아돌아 난리인데도. 하루에 쓰레기로 나가는 분량만 해도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요즘 날씨가 유난히도 춥다. 한낮 기온까지도 영상으로 오르지를 못하고 있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 한겨울 나기가 어렵다. 이처럼 겨울은 빈곤자와 부자의 대비를 극명하게 한다. 이런 참극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는 모두들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 더더욱 다음 주는 구정이다. 어려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은 물론 사람마저 찾는 이 없어 슬플 것이다.

특히 빈곤자, 독거노인, 돌보는 이 없는 장애인 등 삶의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는 계층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때문에 이런 시기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한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해보자. 일단은 자신의 친인척들 중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부터 찾아가보자. 간단한 음식과 보편적인 옷이라도 한 벌 사가지고서. 두 번째, 주변 지역을 떠돌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도움을 줘보자. 세 번째, 아파트 경비에게 간단한 선물이라도 해보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닌가.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보자.

마지막으로는 기부금 모금기관에 기부를 해보자. 최소한 지금까지 열거한 것 중에서 단 한곳이라도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것이 진정한 정치다. 상호부조다. 따뜻한 인정이 피어나는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렇잖은가.

社 說

규칙적 운동으로 건강 지켜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1번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니 다행으로 여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2017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1회(1회 운동시 30분 이상)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은 전체의 59.2%였다. 2017년 조사의 59.5%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4년 54.8%, 2015년 56.0%에서 점진적인 증가 추세다.

반대로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014년 34.5%에서 2016년 29.5%, 지난해 28.9%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이 61.7%로 가장 높았고 20대(55.2%)와 70대 이상(54.6%) 참여율이 낮았다.

증가 폭으로 보면 30대 이상 여성의 참여율이 62.7%로 전년 대비 7.7%포인트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문체부는 분석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체육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여전했다.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국민 중엔 절반 이하인 49.2%만이 주 1회 운동에 참여했고 600만원 이상에선 65.8%가 운동을 했다. 다만 두 그룹 간의 참여율 격차가 2016년 26.5%포인트에서 2017년 16.6%포인트로 줄어든 점은 고무적이었다.

국민이 가장 즐기는 '국민 스포츠'는 올해도 '걷기'였다. 주로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31.8%가 '걷기'를 꼽았고, 등산(17.0%), 보디빌딩(14.7%), 수영(8.2%), 축구·풋살(7.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 모두가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 고

설 으 뜸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우리는 왜 안전사고 후에 예방을 논하는가?

화재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게 계기가 된 소방법이 제정되고 60년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많은 사건·사고를 겪으며 그에 대한 대책과 법률을 내놓고 예방이라는 단어로 재난을 지켜왔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대문 화재, 제천 화재 그리고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까지 우리는 수많은 큰 사건을 겪으며 우리가 마련한 그 '예방'이란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여러 사건·사고가 터지면 국민들은 하나같이 '왜 미리 대처하지 못했나?'라는 반응을 내보이며 현실에 대해 씁쓸해 한다. 우리는 왜 안전사고 후에 예방을 논할까?

예방(豫防)이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사고는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뜻밖에 일어난 일이다. 예견할 수 없는 점이라는 데에 예방은 항상 여러 변수를 생각하며 대처해야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해나가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변화에 예방은 따라잡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동안 쌓여있던 데이터를 토대로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렇게 예방지도를 하면서도 사고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안전불감증이다.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휘감았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였다. 특히 다수의 사상자가 있었던 2층 여자목욕탕은 비상구가 목욕바구니와 선반 등 장애물로 막혀있어 쉽사리 피난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또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로 대피를 하거나 무리한 탈출로 피난구를 찾다 유독가스를 많이 마셔 질식하는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어렸을 때부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아온 세대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최소 12~15년 동안 꾸준히 교육을 받아왔음에도 단지 자신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서는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거란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안전불감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된다.

두 번째로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이다.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된다.

크게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작게는 소화기 및 유도등 설치까지 여러 가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건물 관계인들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소방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을 위험하게 만들기도 하고 화기 취급 시 주변 소화기 미비치, 문어발식 코드 사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뜻 그대로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처럼 우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방면의 교육·홍보로 그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전사고가 100% 막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 모든 노력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을 때만이 빛이 난다.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더 이상의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劍	칼	검
號	이름	호
巨	클	거
闕	대궐	궐

劍號巨闕

▷뜻 : 거궐은 칼 이름이고, 구야자가 지은 보검임.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